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9. 29.(화)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9월 29일(월)부터		
담당부서	의사입법담당관 의사기록팀	담당자	김효영 사무관(044-300-7271)
			구 민 주무관(044-300-7272)

세종시의의회, 제5대 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 개최

-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

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의장 안신일)는 오늘(29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8일간 제109회 정례회를 열고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한다.

안신일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 시대 개막 발표와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이전 방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부지 현장 점검 등 최근 3개월간의 움직임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시계가 다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연내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돼 세종이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의장은 “행정수도가 완성되더라도 그곳에서 살아갈 아이들이 위태롭다면 온전한 완성이라 할 수 없다”며 “지난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초·중·고 학생이 24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체계와 관련 예산 집행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는 예산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며 “그 결과가 오는 11월 2027년도 예산심사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해정·정연희·김동호·곽효정·유인호·김창연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현미 의원의 ‘세종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노종용 의원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절차확인과 실효성’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박란희 의원의 ‘금강수목원 재개장 협약 소통·협치 미흡’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이 각각 진행돼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상정·처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 달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